여수 율촌역 영구 보존키로

문화재청, 문화재 등록예고 간이역 지정

여수 율촌역<사진>이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영구히 보존된다.

문화재청은 지난 7월부터 9월 초까지 간이역 65곳을 대상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해 역사적·건축적 가치가 높은 율촌역, 남평역 등 12곳을 문화재 등록예고 간이역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등록 예고된 율촌역은 1930년 12월에 건립된 역으로 왼쪽에 대합실, 중앙부에 역무실, 창고이어져 전체적으로 'ㄴ' 자형 평면을 이루고 있다.

특히 역사지붕이 다른 역사와 달리 일본식 '모임지붕 양식'이어서 근대 철도사적 가치와 건축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율촌면에 거주하는 위 모씨는 "한때 연 20여만명에 이르는 서민들이 애용하던 역이 이제는 하루에 겨우 10여 명만 이용하는 간이역으로 전락했는데 지역의 관광명물로 영원히 남을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순천 덕암동 유적공원 만든다

고대 유물 수백점·주거지 240기 발굴 된 유적지

자료관 건립은 아파트 시공사 협조 없인 불투명

청동기시대부터 고려 초기에 이르는 고대 문화유물 수백여점이 출토되고 대규모 주거지가 발굴됐던 순천시 덕암동 아파트 예정부지내에 유적 공원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순천시는 3일 "최근 열린 문화재청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덕암동 유적지에 대한 유적공원 조성 방안 등 계획을 다시 수립해 제출하라고 시에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순천시는 이에 따라 발굴을 담당했던 (재)남도문화재연구원과 아파트 시행사인 한국토지신탁측에 이 같은 내용을 알리고 협의를 통해 유적지 활용방안을 다시 세워 줄 것을 요청했다.

남도문화재연구원측은 문화재청이 유적공원 조성 방안을 언급함에 따라 대규모 또는 소규모 형태의 유적 공원이 아파트 부지내에 들어설 수 있다는 내용으로 시공사 측과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일단 연구원측은 아파트 부지내 잔여공간에 50여평 내외의 소규모 공원을 조성, 이 공간에 발굴 유구 중 대표적인 몇 점만을 이전, 상징적인 전시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순천시나 연구원측 모두 당초 계획했던 자료관 건립은 시행사측의 협조 없이는 유적공원내 조성이 불투명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아파트 공사 착수 여부는 유적지 보존 방안이 나온 다음에 확정 될 것"이라면서 "문화재청과 협의해 가급적 많은 유적이 현장에 남아있게 하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3만여평에 493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인 덕암동 유적지에서는 BC 3세기부터 6세기에 걸친 주거지 240기와 환호(環壕) 428m, 옹관묘 등 무덤 10여기, 경질무문토기(硬質無文土器) 등 170여점에 이르는 다양한 유구가 발견돼 학계의 관심을 끌었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지역 단신/

영어교육 순천국제학술대회

2006 영어교육 순천국제학술대회가 지난달 29일부터 이틀간 순천강남여고에서 개최됐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28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심포지엄과 초·중등 일선교육 현장의 우수사례와 주제발표 순서로 진행됐다.

학술대회를 주관한 김연수 강남여고 교장은 "국제화 교육특구도시로서 국제교류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영어 교수 학습법 개발을 위해 대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광양시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특강

광양시와 광양 원예농업협동조합은 지난달 29일 금호동 주민자치센터에서 400여명의 포스코 부녀회원과 일반 주부들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초청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특강은 부산 YWCA 생활협의회 교육위원인 석종욱 박사와 경실련 가족실천연대 박영현 전문위원이 강사로 나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실시됐다. /광양=김춘호기자 chkim@

지휘자 해촉·단무장 2개월 정직

여수시, 외부공연 등 파문 시립국악단 중징계

여수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복무 규정을 위반한 시립국악단 지휘자를 해촉하고 단무장에 대해서는 2개월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번에 징계 조치된 국악단 상임단원들은 외부 공연에서 사례비를 받을 수 없음에도 지난 4월 순천 낙안민속축제에 출연해 사례비로 1천300만원을 받는 등 각종 공연에 임의대로 출연, 출연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또 지휘자 A씨는 시의 사전승인 없이 지난해 1학기부터 전북지역 모 대학 강사로 출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시립국악단 지휘자와 단무장의 중징계 조치에 따라 객원 지휘자를 임시로 위촉해 공백을 최소화하는 한편 조만간 공모를 통해 역량있는 지휘자를 영입할 계획이다.

또 상임단원 중 선임자를 임시 단무장으로 지정, 단무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 공연 수입금을 기금으로 활용토록 하는 방안과 비상임단원에 대한 수당 현실화 등 예술단 운영의 활성화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각종 문화예술 행사를 앞두고 중징계를 내리게 돼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다시금 시민의 사랑을 받는 국악단으로 육성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해경 벼베기 농촌일손 돕기 여수해양경찰서 117함정(정장 오만석)에 근무하는 경찰관 및 전경들은 지난 1일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상동마을을 찾아 벼베기, 벼가마 나르기 등 부족한 농촌일손 돕기에 나섰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한산사 범종 문화재 지정해 주오"

여수시, 이충무공 자당기거지 등도 곧 신청키로

여수시가 지역내 보존가치가 있는 유물과 유적에 대해 잇따라 문화재 지정을 추진 중이다.

3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8월 전남도에 문화재 지정을 신청한 봉산동 한산사(寒山寺) 범종에 대해 전남도가 지난달 말 실태조사를 나와 동종 상태를 점검했다. 고려 명종때 보조국사 지눌이 창건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한산사 범종은 1750년경 주조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종 소리가 맑고 은은한 데다 조선시대 다른 종에 비해 문양 위치가 특이해 문화재로써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시는 또 지난 8월 현지조사를 마친 웅천동 이충무공 자당기거지(어머니가 머물던 곳)에 대해서는 문화재 보호 구역 지정에 따른 민원 검토 등을 거쳐 이달 중 도에 문화재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충무공 자당기거지는 이순신 장군의 모친 초계 변씨(草溪 卞氏·1515~1597)가 충남 아산에서 내려와 5년간 머물렀던 곳으로 충무공의 효심이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다. 또한 현재 학술 조사가 진행중인 국동 영당(靈堂) 및 신청(神廳)에 대해서도 학술 조사가 끝나는 대로 문화재 지정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2004년 국가문화재 지정을 신청했다가 문화재청으로부터 추가 발굴 및 학술 규명 후 재신청하라는 통보를 받은 지방기념물 제150호 여천동 석창성지에 대해서는 2차 발굴 조사가 완료되는 내년 10월 중 국가 사적지 지정을 다시 신청할 예정이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광양시 공공비축미 매입

광양시는 연말까지 공공비축미 6만8천445가마에 대한 매입에 나선다.

이중 산물 벼 8천200가마는 지난 1일부터 광양RPC를 통해 매입하고 있으며 포대벼 6만245가마는 오는 25일부터 올해 말까지 마을별로 일정을 수립, 매입하게 된다. 매입대금은 1등급 40㎏ 1가마당 산물 벼는 4만7천780원, 포대벼는 4만8천450원이다. /광양=김춘호기자 chkim@

외국인 가족 송편 빚기 여수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난 2일 여성문화회관에서 외국인 가족 50세대 등 3백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추석맞이 송편 만들기 및 전통문화 체험 행사를 가졌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웅천동 고갯길~웅천저수지 도로 지난해 교통사고 65건 발생 (최다)

여수소방서 10대 다발지역 선정

여수소방서는 3일 귀성 및 성묘객들의 안전을 위해 여수지역 교통사고 10대 다발지역을 선정했다.

귀성객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구간은 웅천동 고갯길~웅천저수지 앞 도로로 지난해 여수지역에서 가장 많은 65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덕양 입구~여수공항, 신기동 신기주공 2단지 앞, 신기동 부영 3차앞, 여수소방서 뒤편 상가밀집 지역, 소호동 소재마을 앞 커브길, 학동 신화아파트-선소, 율촌 삼경주유소~율촌 조화리, 소라면 죽림저수지-무선 방향 도로, 석창사거리~둔덕사거리 등도 교통사고 발생이 많은 곳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여수소방서는 추석 연휴 교통 사고 예방을 위해 졸음운전, 휴대전화 통화는 물론 차량내 TV 시청, 음식물 섭취 등 운전자의 주의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여수소방서 관계자는 "119구조대가 가장 많이 출동한 지역을 분석했다"면서 "가족 친지와 함께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는 안전한 길라잡이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光州日報 지사안내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전북	
여 수	653-8444 (686-8584)	목 포	276-9200	나 주	332-5544
광 양	792-8111	무 안	452-8535	나주남부	334-6969
보 성	853-9700	해 남	534-5151	화 순	374-4423
순 천	746-8111	완 도	554-6677	장 성	392-7000
고 흥	833-9900	영 광	351-0055	담 양	383-8111
녹 동	842-2121	신 안	243-3758	영 암	473-2340
구 례	783-8111	진 도	543-0100	장 흥	863-8822
곡 성	362-8111	강 진	433-8355	광 산	944-0444
		함 평	324-8111	고 창	564-1919
				순 창	653-6155